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0 월 1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올버니 지역의 5 백만 달러 규모 생활 지원 주택 건설 사업 착공 발표

HIV/AIDS 를 가진 노숙인들을 위한 아파트 20 채 조성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올버니 지역에서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를 가진 장기 노숙인들을 위한 5 백만 달러 규모의 생활 지원 주택 개발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6,000 평방피트 부지에 새로 건립되는 올버니 데미언 센터(Albany Damien Center)는 이 기관의 프로그램 본부로 역할하면서 영구 생활 지원 주택 아파트 20 채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IV 를 가진 분들이 생활 지원 주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AIDS 퇴치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새로운 개발 사업은 이분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질환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뉴욕주에서 이 전염병을 영원히 몰아내려는 뉴욕 행정부의 노력에 힘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 및 지방 관료들이 오늘 올버니에서 열린 데미언 센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뉴욕주 전역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에서 AIDS 를 근절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한 기금은 데미언 센터로 하여금 새 시설에서 제공되는 종합적 서비스와 아울러 주거 지원을 통해 구제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및 올버니 파인힐 인근 지역의 신규 증축 등을 통해 전면 쇄신되는 데미언 센터는 HIV/AIDS 를 가진 장기 노숙자 22 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도 지역(Capital Region)의 유명 기관인 이 센터는 HIV/AIDS 감염자를 위한 곳으로서, HIV 관련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2013 년 화재로 기존 시설이 파괴된 이후 임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에는 기존에 없었고 너무나 필요했던 영구적 생활 지원 주택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2017 년 8 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뉴욕주 장애인임시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노숙자주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30 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 기금은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재설계팀 주택 사업에 따라 배정되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저축의 일부는 메디케이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독신 성인 노숙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 등 메디케이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됩니다. 생활 지원 주택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적절히 억제하는 동시에 수혜자들의 장기적 생활 및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사 비용의 수지는 데미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말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유례 없는 104 억 5 천만 달러 규모 노숙자 지원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84 개 지역사회 사업자들이 총 121 개 사업 지원 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데미언 센터는 이렇게 선정된 기관 가운데 하나이며, 상기 아파트의 운영 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36 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Samuel D. Roberts 뉴욕주 장애인임시지원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랫동안 생활 지원 주택 개발 사업을 선도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노력과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생활 지원 주택은 건강 상태 개선 및 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서비스와 주거 지원을 결합한 사업입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데미언 센터는 HIV/AIDS 감염 장기 노숙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 지원 주택은 그러한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뉴욕주 장애인임시지원국의 노숙자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투자 지원에 갈채를 보냅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버니 데미언 센터는 주도 지역 HIV/AIDS 감염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Cuomo 주지사 와 뉴욕주의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이 센터는 생활 지원 주택을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erry Junjulas 씨와 데미언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거둔 엄청난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Daniel P. McCoy 올버니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올버니 데미언 센터는 화재로 건물이 전소하는 재난을 겪었으나, 이번의 재탄생은 우리 카운티에서 HIV/AIDS 로 고통받는 장기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새 영구 주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HIV 또는 AIDS 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란 의료적 건강 관리를 의미하며, 노숙 상황을 해결하면서 필요한 의료적 건강 관리를 받도록 도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Kathy M. Sheehan 올버니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 임시지원국의 이번 기금 지원 약정은 생활 지원 주택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지 활동과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기 노숙인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데미언 센터는 주도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온정적 구호 활동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Perry Junjulas 올버니 데미언 센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이번 투자는 뉴욕주에서 AIDS 를 퇴치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IV/AIDS 감염인들에게 있어 주거 지원이란 의료적 건강 관리를 뜻하는 바, 올버니 데미언 센터는 그와 같은 토대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필요한 의료적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이번 투자는 주정부는 물론, 지방 및 카운티 행정부에게도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 주거의 기여는 HIV 치료에 대한 꾸준한 참여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HIV 치료 과정의 각 단계에서의 치료 효과에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생활 지원 주택은 뉴욕주에서 AIDS 를 퇴치하려는 주지사의 계획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HIV/AIDS 감염인들에게는, 뉴욕주에서 가장 긴요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주거 지원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